



광남일보



조간 제 8085 호 대표전화 062-370-7000

GwangNam.co.kr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음력 3월 29일)

여수·순천·광양시장 선거...유권자 선택 '예측불가'

6·3지방선거 D-19 '흔들리는 텃밭' 전남 등부권

전남 등부권 시장 선거가 6·3 지방선거의 핵심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여수·순천·광양은 전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세가 두터운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역대 선거에서는 정당 간보다 후보 개인의 경쟁력과 지역 현안 대응 능력이 더 크게 작용해 왔다. 이번 선거 역시 민주당 후보들이 본선에 나섰지만 경선 후유증, 무소속 후보의 경쟁력, 제3정당 후보의 가세가 맞물리면서 판세를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흐름이다.

1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 등부권 선거의 공동 변수는 민주당 조직력이 그대로 작동하느냐다. 세 지역 모두 민주당 우세 지역이라는 기본 구도는 유지되고 있지만, 시장 선거에서는 다른 양상이 반복돼 왔다. 순천과 광양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강세를 보여왔고, 여수 역시 다자 구도 속에서 정당 프리미엄이 절대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산업도시와 관광도시의 성격이 섞인 지역 특성상 유권자들은 중앙정치 구도보다 일자리, 산업 전환, 행정 성과, 생활경제 회복을 더 직접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강하다.

여수는 민주당 서영학 후보와 조국혁신당 명창환 후보, 무소속 김창주·원용규 후보가 맞붙는 다자 구도다. 민주당은 치열한 경선을 거쳐 서 후보를 공천했지만 당원명부 유출 논란, 전략공천지역 전환, 여론조사 방식 변경 등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이 본선 부담으로 남아 있다. 여수

여수 서영학 vs 명창환...민생 회복·산단 위기 최대 쟁점
순천 손훈모 vs 노관규...공천 잡음속 무소속 현직 넘을까
광양 정인화 vs 박성현 진검승부...산업도시 표심이 변수

는 석유화학 산업 침체와 산단 구조 개편, 청년 유출, 관광산업 정체가 겹친 만큼 후보별 산업 전환 해법이 표심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서 후보는 청와대 행정관 출신 이력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의 연결성을 강조하

고 있다. 여수국가산단 고용 위기 대응, 석유화학 산업 구조 전환, 차세대 산업 육성, 관광·문화도시 재도약, 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내세우며 국비 확보와 대형 사업 추진력을 부각하는 전략이다. 경선 과정의 후유증을 얼마나 빠르게 봉합하고 민

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느냐가 본선 초반 과제로 보인다.

명 후보는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행정안전부 근무 경험을 앞세워 민주당 독점 구도에 도전하고 있다. 여수산단을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차전지·반도체·우주항공 소재 등 첨단 산업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 출퇴근 시간대 버스요금 무료화, 시민편드 조성 등 생활정책도 함께 제시하며 경선 과정에 실망한 표심과 변화 요구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무소속 김창주 후보는 산업단지 재생과 문

화·콘텐츠 인프라 확충을, 원용규 후보는 관광 활성화와 생활SOC 확충, 상권 회복을 앞세워 다자 구도 속 변수 역할을 노리고 있다.

순천은 민주당 손훈모 후보와 무소속 노관규 현 시장, 진보당 이성수 후보의 3파전이다. 민주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중앙당 감찰을 받았던 손 후보의 공천을 최종 확정했다. 손 후보는 의혹을 해소했다는 입장이지만, 캠프 관계자 금품 수수 의혹과 과거 변호 이력 논란은 후보 신뢰도 측면에서 여전히 선거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손 후보는 민생경제 회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24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역화폐 확대, 청년·아동 지원, 전세사기 피해 대응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자영업자 최저소득보장제를 1호 공약으로 제시하며 골목상권 회복과 소상공인 보호를 핵심 과제로 삼았다. 관광공사 설립을 통한 재원 마련과 원도심·청년 지원 재투입 구상도 함께 내놓으며 민생 중심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2면으로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5명 출사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된 14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민의힘 이정현, 진보당 이종욱, 정의당 강은미, 무소속 김광만 후보.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올해 광주시민대상 '140만 광주시민'

민주주의의 수호 시민에 헌정...특별상에 김정호 변호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빛의 혁명'을 완수한 140만 광주시민이 올해 '광주시민대상'을 받는다.

이번 선정은 12·3비상계엄 당시 5·18민주광장에 집결해 평화로운 시국대회를 이끌었던 시민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시민 전체가 시

상대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시는 12·3비상계엄을 저지하고 탄핵을 이끈 '140만 광주시민'을 제39회 광주시민대상, 김정호 변호사를 특별상 수상자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140만 광주시민'은 2024년 12·3비상계엄 선포 직후 5·18민주광장으로 집결,



김정호 변호사

계엄 반대를 외쳤다. 이어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떠올리며 시국대회를 주도하고 선결제와 응원봉으로 주먹밥 나눔을 실천했다.

김정호 변호사는 9년에 걸친 '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 소송 승소와 5·18을 왜곡·폄훼하는 행위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판례를 확립한 공로로 특별상을 받게 됐다. 양동민 기자 yang00@

6·3 지방선거 본선 레이스 스타트

오늘 등록 마감...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돌입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 날인 14일 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이 속속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7월 출범 예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체제 전환을 앞두고 광역단체장 1명과 교육감 1명, 기초단체장 27명, 광역의원 91명(광주 28명, 전남

63명), 기초의원 320명(광주 73명, 전남 247명)을 선출한다. 여기에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포함하면 총 441명을 뽑는다.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 진보당 이종욱 후보, 정의당 강은미 후보, 무소속 김광만 후보 등 5명의 후보가 이날 오전 후보 등록을 마쳤다.

통합교육감 선거에 나선 강숙영·김대중·이정선·장관호 후보 등 4명의 후보도 이날 등록을 완료했다.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임명영 후보와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 진보당 전주연 후보 등도 후보 등록을 마쳤다. 기초단체장 출마자들 또한 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한편, 후보 등록은 15일까지 이어지며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1일부터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토·일 신문 쉽니다

온라인 뉴스는 gwangnam.co.kr에서 계속

OK! 지금은 전남시대

남해안남중권 대표공항, 여수공항

남해안 여행의 시작, 여수공항에서 편리하게~!

제주
매일 4회 운항

김포
매일 3회 운항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2026 WORLD ISLAND EXHIBITION
YEOSU KOREA
9.5.~11.4.